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오늘부로 Sommerzeit가 해제되었습니다.
- 예배당 진입문 변경: 예배 시작 5분 전에 강대상 쪽 출입문 닫고, 반대편 쪽 정문으로만 출입합니다.
- 가족 토요기도회: 매월 첫째 토요일 7시 믿음방(11월 7일 토요일)
- 오병이어 모금통에 관심 가져 주세요.
- 라합2나라 모임: 10월 29일(목) 10시 30분 호텔KO
- 청년부 1일 수련회: 11월 2일(월) 10-20시 호텔KO 및 선우 음악학원 등
- 생일: 서정인, 유지아
-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각 그룹 대표자 선정을 위한 모임: 2부 예배 후
장로, 여성 은퇴자, 안수집사, 권사,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회학교 대표 각 1인

◆말씀일기 일정

일/약5:13-20	월/시16:1-11	화/시17:1-15	수/시18:1-15
목/시18:16-29	금/시18:30-50	토/시19:1-14	일/고후1:1-11

-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92독 (나지홍 1독)

◆ 예배위원 안내 ◆

	10월 25일	11월 1일	11월 8일	11월 15일
예배기도	채해웅	서영지	김진	김혜경
안내위원	예배부			
봉헌위원	김대진 임나원	장혜진 강일구		
애찬위원	밥상 둘	밥상 셋	밥상 넷	밥상 다섯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 15:9)



주일예배 11:45 Teestube 소망방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년부 15:30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믿음방
(가족기도회-매월 첫째 토요일)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Pfr. Dr.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종교개혁주일)

인도: 손교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4장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다 함 께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104번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262장	다 함 께
기도/Gebet		채해웅 목사
찬양/Chor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전교인찬양대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야고보서 5:13-20	인 도 자
설교/Predigt	끝까지 살아있는 믿음	손교훈 목사
찬송/Gemeindelied.....	539장	다 함 께
봉헌/Kollekte.....		다 함 께
교제/Bekanntmachung.....		다 함 께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께
※축도/Segen		손교훈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Missionskirchengemeinde e.V.

Bank: Stadt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계좌

IBAN: 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계좌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약3:1-12 '좋은 교사' ◀

말씀은 첫 구절부터 나를 멈추어 세운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1).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경고일 것이다. 남을 가르치는 일에는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나는 과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삶으로 보여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야고보는 허가 작은 지체이지만 큰 영향을 미치며,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듯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가르친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친 영혼을 일으킬 수도 있다. 내 입술은 오늘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로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더욱 두려운 것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배 시간에는 은혜로운 말을 하면서 일상에서는 쉽게 불평하고 판단하는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 좋은 교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일 것이다. 내 힘으로 허를 온전히 다스리기는 어렵지만,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말과 태도도 조금씩 새로워질 수 있으리라 다시 기대해 본다.

주님, 말만 앞서는 교사가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보여 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우고, 말하기 전에 먼저 듣고, 전하기 전에 먼저 살아 내는 좋은 선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 지난 주 봉헌 내역(10월 18일-10월 24일) ◀

십일조	감사헌금	목적헌금
우선화, 이하임, 이동훈	석혜진	한상철(장학)
총액 692,00유로		